

“베드로의 친절한 설명”

사도행전 11:1-18

「죽은 CEO 의 살아있는 이야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10 명의 CEO 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안일한 비즈니스 전통을 깨뜨린 경영자들로써, 20 세기의 주요 세계 경제를 이끌며 비즈니스 혁신가들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Bank of America-아마데오 피터 지아니니, IBM-토머스 왓슨 시니어와 주니어, Mary Kay-메리 케이 애시, Estee Lauder-에스티 로더, RCA -데이비드 사노프, McDonald-레이 코록, Wal-Mart 의 샘 월튼 등...

이들의 공통점은 비즈니스의 스케일이 크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OA 의 지아니니는뱅크오브 이태리를 세워서 그 당시 일반인은 은행의 고객이 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도 처음으로 시작했고 심지어 냉장고도 담보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반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을 전개함으로 인해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Wal-Mart 의 샘 월튼은 마주치는 상대가 말을 걸기 전에 먼저 인사를 건네는 3 미터 법칙 즉 '친절의 법칙' 으로 학교에서부터 인기와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속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교제를 했던 것 뿐 아니라 그들에게 침례까지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율법을 어긴 행위라며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위기에 처해졌지만 친절한 설명과 검소를 통해 그에게 닥친 위기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 친절이 성령 받는 사람의 겸손이다.

(행 11:1-2)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어야 할텐데, 도리어 이들은 베드로의 행위가 율법을 어겼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율법에 따른 행위(이방인들과의 식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며, 나 역시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었노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 장 9-16 절에 기록된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한 사건, 또한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들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친절히 설명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설명을 잘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설명하며 설득할 수 있는 마음도 얻게

됩니다. 반면, 여전히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갈등이 생기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를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다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긍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을 믿음의 표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인생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후로 흉년을 맞게 되어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을 법도 한 형님들을 향해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입니까? 결국 요셉의 이런 태도 곧 자기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로 인해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0%의 '부정적 사실'을 90%의 '긍정적 반응'으로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사실 자체에 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반응으로 이 사실들을 뒤집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기도하는 자에게 우연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전에 서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신앙이란 '알고 가는 것' 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의 만남이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르는 것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도리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맞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부르짖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3.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사 55:8-9)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정해지면 도무지 그 생각이 도무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선민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지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선택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부름 받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민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 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뽑아 주셨습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친절한 설명이 성령 받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겸손'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때 친절한 사람인가? 내 주변에 '친절'하면 떠올려지는 사람 혹은 사건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존재한다' 는 말에 나는 얼마나 동의가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자신의 굳어진 생각이나 관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 11: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행 11: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자기 수준으로 베드로를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영적/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비판하는 사람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것이 매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차분히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은 필연이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상대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능력, 또한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